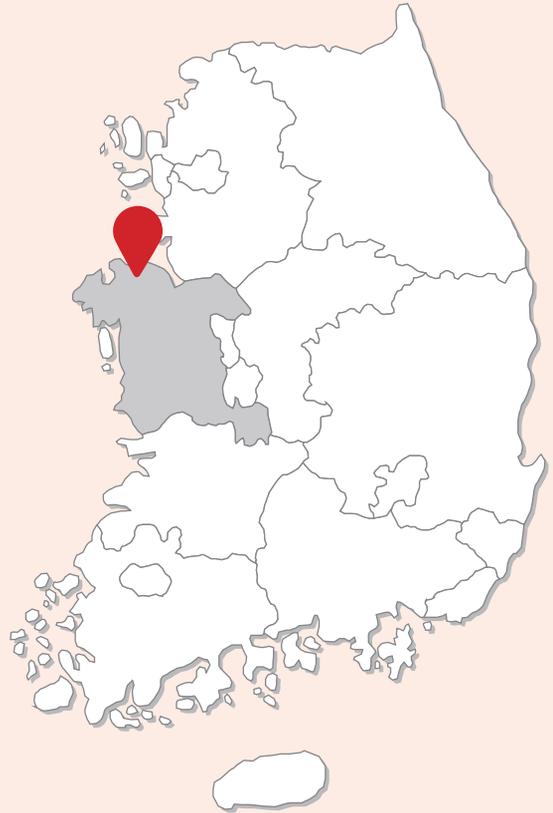


“비수도권 학생을 위한 기사 더 많아졌으면”

거주	충남 서산시 성연면
자녀	고3, 고2, 중2
구독 기간	11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큰아이가 고2 때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진로 고민을 상의드리니 〈내일 교육〉을 추천해주셨어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 교육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도 많았는데 〈내일교육〉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엔 애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남편에게도 읽기를 권해요.

〈내일교육〉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도권 신도시에 살다가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말로만 듣던 교육 격차를 깊이 실감하는 중이에요. 집 근처에 대입 전문 학원이 없다 보니 고3인 큰아이는 일단 혼자 해보겠다고 고군분투 중이지만 아무래도 수능 준비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종종 토로하거든요. 비수도권 학생을 위한 기사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중2인 막내의 고등학교 진학도 큰 관심사라 요즘 고입 설명회를 열심히 다니는 중이에요. 하지만 특목고와 자사고 정보가 부족해 인터넷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고입 관련 기사도 비중 있게 다루주면 좋겠습니다.

<내일교육>에서 보고 싶은 기사가 있나요?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초등 교사가 꿈이었기에 교대를 지원할 예정인데, 저는 최근 교사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와중에 교대 합격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기사만 쏟아지는 요즘 상황이 참 속상합니다. 저희 아이처럼 점수대가 훨씬 높아도 소명과 오랜 꿈을 좇아 교대에 소신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자긍심을 갖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좀 더 입체적인 시선으로 다룬 교대 입시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Reporter's A/S



본지 1135호
'특목·자사고부터
일반고까지 지속형
고교 길라잡이'
기사 참조

중3을 위한 고교 선택 가이드를 담은 '위클리 테마'부터 고입 일정, 특목·자사고를 포함한 지속형 고교 등의 정보를 담은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한 주의 주요 교육 기사를 엄선해 다루는 '위클리 포커스'에서는 고입 정보를 발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의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이 궁금하다면 1133호의 '2025 고입 캘린더'를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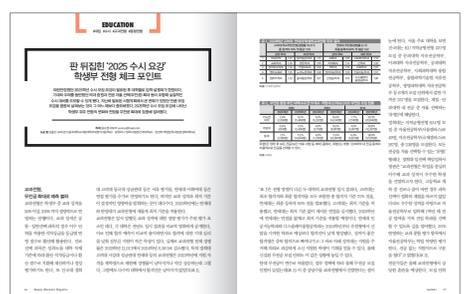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2024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21_ 영문학은 나의 힘

"고2인 둘째는 아직 명확하게 진로나 전공을 정하지 못해 고민이 많아요. 수시 합격생 인터뷰는 학생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극도 받고,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꼭 챙겨 읽는 편입니다."



판 뒤집힌 '2025 수시 요강' 학생부 전형 체크 포인트

"큰아이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치를 예정이라 <내일교육>에 나오는 관련 기사는 특히 더 꼼꼼하게 읽습니다.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을 포함해 올해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과 달라진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